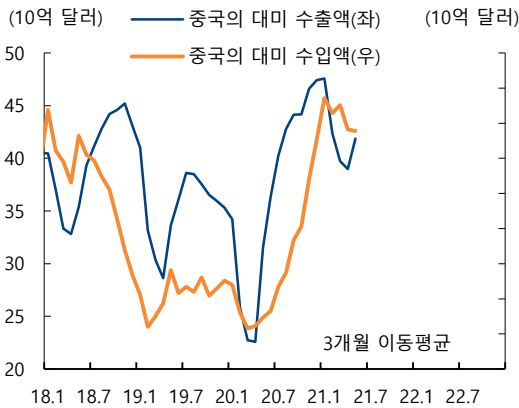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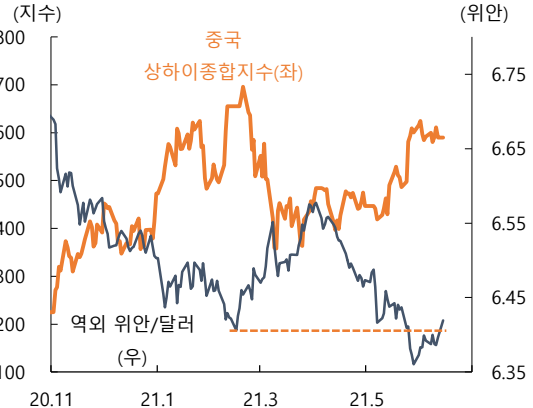
## G7 정상회담을 통해 노골화된 미국의 대중 견제

그림1. 아직 미흡해 보이는 중국의 대미 수출액 규모



자료: Bloomberg, CEIC,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특별한 움직임은 없지만 중국 역외 위안/달러 환율 주시



### ■ 시진핑 국가 주석 생일(6월 15일)을 앞두고 날아든 G7 성명서

- ✓ 영국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은 서방국가와의 공조 측면에서 미국의 복귀를 알리는 동시에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음을 보여준 회담임
- ✓ G7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 선언문은 중국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서방의 반중 연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얻음. G7 공동 선언문에는 중국이 내정간섭으로 여기고 있는 신장 자치구 인권문제, 홍콩 차지권은 물론 대만 해협 문제도 포함되는 등 미국측이 제기하고 있는 대중 이슈를 모두 포함시킴. 특히, G7 정상회의의 공동 선언문에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과 양안 이슈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문구가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양안 문제를 거론했다는 점에서도 미국의 대중 견제 강도를 짐작해 볼 수 있음
- ✓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국 견제 부문이 눈에 띈다. 공동 선언문에 "세계 경제와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관행과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에 대해 G7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함. 더욱이 중국의 일대일로 맞선 G7 차원의 인프라 투자 계획도 밝힘. 바이든 대통령은 "G7의 글로벌 인프라 펀드인 "Build Back Better World(B3W) 프로젝트가 '일대일로'보다 공정할 것"이라고 밝힘.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인프라 투자 확충과 신공급망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Build Back Better 정책을 미국 주도로 전세계 차원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됨
- ✓ G7회담을 통해 미국의 대중 견제 의도를 확실히 드러낸 가운데 미국 자체적으로 중국 견제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있음. 6월 10일 백악관이 '미국 공급망 검토 결과 보고서(BUILDING RESILIENT SUPPLY CHAINS, REVITALIZING AMERICAN MANUFACTURING, AND FOSTERING BROAD-BASED GROWTH)' 발표하면서 미국 중심의 신공급망 구축 의지를 본격화했고 미국 의회 역시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한 중점 산업 기술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시간이 갈수록 강도를 높여가고 있음
- ✓ 트럼프 대통령 당시 미국의 대중 압박이 수입관세 인상 등의 경제적 관계에 집중된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 압박은 서방국가와의 공조 강화를 통한 경제 및 외교 등 전방위 압박인 동시에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맞춘 신공급망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 및 시진핑 국가 주석이 받는 압박은 더욱 클 수 있음
- ✓ 시진핑 국가 주석 생일(6월 15일)과 공산당 창당 100주년(7월 1일)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미국이 G7 성명서를 통해 대중국 압박 수위를 높였다는 점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 ✓ 물론 미중 갈등 전개를 예단하기 이른 상황임. 연말까지 중국이 1차 무역합의를 얼마나 성실히 이행할지 여부가 변수로 남아 있기 때문임. 여하튼 하반기 테이퍼링 이슈와 함께 미중 관계는 예의 주시해야 할 이슈임은 분명함

### ■ G7 공동 선언문에서 눈에 띄는 이슈는 선진국의 경기부양 의지: 경기 부양정책, 이번에는 다르다.

- ✓ 팬데믹 이후 경제적 지원과 관련하여 공동 선언문에 과거 위기 당시와 달리 필요한 만큼 오랜기간 경제적 지원을 유지할 것임을 밝히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 인프라 투자, 혁신 추진과 인력 지원을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함.

- ✓ 참고로 공동 선언문에 경기부양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We will continue to support our economies for as long as is necessary, shifting the focus of our support from crisis response to promoting growth into the future, with plans that create jobs, invest in infrastructure, drive innovation, support people, and level up so that no place or person, irrespective of age, ethnicity or gender is left behind. This has not been the case with past global crises, and **we are determined that this time it will be different.**
- ✓ 당사의 하반기 전망에서도 지적인 바와 같이 큰 정부 역할이 상당기간 이어지고 각종 혁신 사이클과 인프라 투자를 정부가 주도할 것으로 해석되는 부문임. 이 밖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도 공동 선언문에서 강조되고 있음도 주목되는 부문임
- ✓ 물론 인프라 투자 정책인 Build Back Better World(B3W)의 구체성이 아직 결여되어 있어 실행여부가 불투명하지만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를 위해 서방국가의 공조를 복원시켰다는 점에서 미국 주도의 인프라 투자 정책이 본격화되는 등 서방국가의 경기부양정책이 정말 이번에는 다를지 주목됨

#### Compliance notice

-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박상현)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